

체질성정요법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고찰

이준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교수

Abstract

A Study on the Theoretical Evidence of the Constitutional *Seong-Jeong* Therapy

Jun-Hee Lee

Departmen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Objective

The Constitutional *Seong-Jeong* therapy is one of the important ways to prevent Sasang constitutional symptomatology. But, there are various interpretations and unclear aspects of the content and meaning, so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applying it concretely in actual clinical pract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physiology, pathology, treatment mechanism and its specific meaning.

Method

The pathology associated with constitutional symptomatology is known as Deepening-*Seong* and Exploding-*Jeong*. Therefore, related pathologies and corresponding treatment and prevention mechanisms were reviewed, focusing on the related contents of *Donguisusebowon*, and their specific meanings were considered.

Results and Conclusions

1. Constitutional *Seong-Jeong* therapy is a regimen to prevent and manage Deepening-*Seong* and Exploding-*Jeong*.
2. Deepening-*Seong* and Exploding-*Jeong* are the inappropriate occurrences of *Seong* and *Jeong* in the poor area of the Heavenly-frame recognition and in the vulnerable area of Humanly-activity practice, and the antecedent cause is covetous desire.
3. Deepening-*Seong* and Exploding-*Jeong* cause the weakening in the power of ears-eyes-nose-mouth to perceive Heavenly frame and the power of lung-spleen-liver-kidney to practice Humanly activity in the four constitution's weak system, which lead to the Interruption in processing of four Qi in each weak system.
4. The four constitutions must be careful about the occurrence of covetous desire in the process of recognizing Heavenly frame and doing Humanly activity so that intellectual and behavioral abilities can be exerted to overcome the poor area of the recognition of Heavenly frame and the formation of Humanly activity to prevent deepening-*Seong* and exploding-*Jeong* from occurring.

Key Words: *Seong-Jeong* cultivate method, Constitutional *Seong-Jeong* therapy, Sasang Constitutional patterns.

Received 5, September 2022 Revised 6, September 2022 Accepted 20, September 2022
Corresponding author Jun-hee Lee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23,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02447, Republic of Korea.
TEL: +82 2 958 9280, FAX: +82 2 958 9234, C.P: +82 10 5412 2742
E-mail: ssljh@khu.ac.kr

© The Societ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I. 緒論

전국 한의과대학 주교재인 『四象醫學』에서는 “四象醫學은 性情의 중용적 조절을 목표로 하는 性情중심의학이며, 性情의 失中은 臟腑의 손상을 초래하고 질병을 일으키므로 性情의 過不及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며, 사상체질에 따른 性情修養法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心을 중심으로 한 性情에 따른 양생법’이라고도 칭하고 있다. 2022년에 출판된 『사상체질병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體質性情療法’이라 칭하고 있다¹⁾.

이에 대한 근거는 『東醫壽世保元』의 여러 곳에서 제시되고 있다. 『四象人辨證論』에서는 太陽人은 怒心과 哀心을, 少陽人은 哀心과 怒心을, 太陰人은 樂心과 喜心을, 少陰人은 喜心과 樂心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였다¹⁾. 아울러 太陰人은 ‘察於外’하여 怯心을 안정되게 하여야 하며, 少陽人은 ‘察於內’하여 懼心을, 太陽人은 ‘退一步’하여 急迫之心을, 少陰人은 ‘進一步’하여 不安定之心을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²⁾. 『四端論』에서는 太陽人은 暴怒와 深哀를 경계하여야 하고, 少陽人은 暴哀와 深怒를, 太陰人은 浪樂과 深喜를, 少陰人은 浪喜과 深樂를 경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³⁾. 병증론 여러 곳에서도 性情과 관련된 병인병리와 그와 연계된 性情수양법을 논하고 있다. 『少陰人胃受寒裏寒病論』에서는 少陰人藏厥證의 원인을 ‘喜好不定’에 두며 그 예방을 위해 ‘君子寬平心’을 제시하였다⁴⁾. 『少陽人胃受熱裏熱病論』에서

는 少陽人陰虛午熱證을 치료함에 있어 약을 복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려야 함을 강조하였다⁵⁾. 『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에서는 太陰人燥熱證의 선행 원인으로 ‘侈樂無厭, 慾火外馳’를 제시하며 그 慾火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⁶⁾. 또한 부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蕩滌慾火, 恭敬其心’라 하여 약을 복용하는 것과 더불어 慾火를 씻어내야 함을 강조하였다⁷⁾. 『太陽人外感腰脊病論』에서는 ‘戒深哀, 遠嗔怒’를 중요한 치법으로 제시하였고⁸⁾, 『太陽人內觸小腸病論』에서는 ‘遠嗔怒, 斷厚味’를 강조하였다⁹⁾.

그러나 ‘性情修養法’ 또는 ‘體質性情療法’은 그 내용과 의미에 있어 다양한 해석이 있고 불분명한 면이 많아 실제 임상에서 구체적으로 이를 적용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다. 특히 太少陰陽人이 경계하여야 하는 哀怒喜樂의 性情을 단순히 ‘슬픔’, ‘화남’, ‘기쁨’, ‘즐거움’으로 제시하는 것은 이해가 어렵고

乎. 蓋喜好者, 所慾也, 何故至於計窮力屈, 而得此少陰病乎, 何不早用君子寬平心乎.”

1)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 17-22 “又曰: 太陽人, 恒戒怒心哀心, 少陽人, 恒戒哀心怒心, 太陰人, 恒戒樂心喜心, 少陰人, 恒戒喜心樂心. 如此則必無不壽.”
2)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 17-21 “余足之曰: 太陰人, 察於外, 而恒寧靜怯心, 少陽人, 察於內, 而恒寧靜懼心, 太陽人, 退一步, 而恒寧靜急迫之心, 少陰人, 進一步, 而恒寧靜不安定之心. 如此則必無不壽.”
3)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18 “太陽人, 有暴怒深哀, 不可不戒, 少陽人, 有暴哀深怒, 不可不戒, 太陰人, 有浪樂深喜, 不可不戒, 少陰人, 有浪喜深樂, 不可不戒.”
4) 『東醫壽世保元』 『少陰人胃受寒裏寒病論』 7-39 “論曰: 少陰人, 喜好不定, 而計窮力屈, 則心煩躁也, 少陰病傷寒, 欲吐不吐, 心煩, 但欲寐者, 此非計窮力屈者之病

5) 『東醫壽世保元』 『少陽人胃受熱裏熱病論』 10-28 “論曰: 上消中消, 裏陽升氣, 雖則虛損, 表陰降氣, 猶特完壯, 故其病雖險, 猶能歲月支撐者, 以此也. 若夫陰虛, 午熱, 飲水, 背寒而嘔者, 表裡陰陽, 俱爲虛損, 所以爲病, 尤險, 與下消略相輕重. 然能善攝身心服藥, 則十之六七尙可生也, 不善攝身心服藥, 則百之百必死也. 此證, 當用獨活地黃湯·十二味地黃湯.”

6) 『東醫壽世保元』 『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 13-25 “此病, 非必不治之病也, 此少年, 得病用藥一周年後, 方死. 蓋此病原委, 侈樂無厭, 慾火外馳, 肝熱大盛, 肺燥太枯之故也. 若此少年, 安心滌慾一百日而用藥, 則焉有不治之理乎, 蓋自始病日, 至于終死日, 慾火無日不馳故也. 諺曰, 先祖德澤, 雖或不得一個報, 而恭敬德澤, 必無一一不受報. 凡無論某病人, 恭敬其心, 蕩滌慾火, 安靜善心, 一百日, 則其病無不愈, 二百日, 則其人無不完, 恭敬德澤之個個受報, 百事皆然, 而疾病尤甚.”

7) 『東醫壽世保元』 『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 13-36 “凡太陰人病, 若待浮腫已發而治之, 則十病九死也. 此病, 不可以病論之, 而以死論之可也. 然則如之何其可也. 凡太陰人, 勞心焦思, 屢謀不成者, 或有久泄久痢, 或痲病小便不利, 食後痞滿, 腿脚無力病, 皆浮腫之漸, 已爲重險病, 而此時, 以浮腫論, 而蕩滌慾火, 恭敬其心, 用藥治之, 可也.”

8) 『東醫壽世保元』 『太陽人外感腰脊病論』 14-3 “論曰: 此證, 即太陽人腰脊病太重證也. 必戒深哀, 遠嗔怒, 修滌定然後, 其病可愈. 此證, 當用五加皮壯骨湯.”

9) 『東醫壽世保元』 『太陽人內觸小腸病論』 15-4 “論曰: 此證, 即太陽人小腸病太重證也. 必遠嗔怒, 斷厚味然後, 其病可愈. 此證, 當用獼猴藤植腸湯.”

구체적이지도 못하다. 그 동안 性情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왔고, 특히 조³와 고⁴ 등은 性情과 體質病證과의 상관관계를 고찰하여 의미 있는 지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 관련된 구체적인 생리, 병리 및 그 함의에 대한 제시는 부족한 면이 있다. 김⁵ 등은 病證論 내의 용례를 집중 고찰하여 喜怒哀樂으로 나타나는 性情과 性氣, 情氣 및 恒心으로 인해 太少陰陽人の 體質病證이 생기게 되고, 能不에 따라 知行을 강조하여 몸과 마음이 유기적으로 연계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性情의 상세한 병리기전과 太少陰陽人에 공통되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치료기전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부족한 면이 있으며, 心慾과 性情간의 관계 설명도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 이에 사상의학의 '性情修養法' 또는 '體質性情療法'이 한의요법으로 정착되어 한의 임상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 기반이 되는 이론적인 근거를 분명히 하고 그 구체적인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II. 研究方法

性情修養法 즉 體質性情療法의 치료 기전은 體質病證을 유발하는 병리에 대응이 되어야 한다. 性情과 관련된 體質病證의 발병 원리는 통상적으로 『東醫壽世保元(辛丑本)』 「太陽人內觸小腸病論」에 제시된 性深着과 情暴發으로 여겨진다⁴⁵. 이에 관련된 구체적인 병리 과정을 『東醫壽世保元(辛丑本)』의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그에 대응하는 치료 및 예방 기전을 검토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함의를 고찰하였다. 조문번호는 『사상체질과 임상편람 제2권』을 따랐다⁵.

III. 結果

1. 「太陽人內觸小腸病論」에 제시된 性深着·情暴發과 表裏病의 발생 원리

『太陽人內觸小腸病論』 말미에는 '性이 深着하면 表氣를 상하고, 情이 暴發하면 裏氣를 상한다'는 性情의 병리 과정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제시되고 있으며¹⁰), 이는 性情과 관련된 太少陰陽人 體質病證의 핵심적인 발병기전이 된다. 『東醫壽世保元(甲午本)』의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病證論의 편명은 『東醫壽世保元(辛丑本)』과 다르다¹¹).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의 病證論 편명은 性深着과 情暴發에 의해 손상되는 太少陰陽人の 偏小한 부위를 들어 각각 '外感病'과 '內觸病'으로 명명하였는데, 그 명명의 원리는 性深着에 의해 表氣를 상하고, 情暴發에 의해 裏氣를 상한다고 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性深着과 情暴發은 體質病證 발생의 핵심 병리이며 그 치료와 예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타고나는 哀怒喜樂의 性情과 후천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性深着과 情暴發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점이다. 性深着과 情暴發은 太少陰陽人이 타고난 哀怒喜樂의 性情의 병리적인 발동

10) 『東醫壽世保元』 「太陽人內觸小腸病論」 15-10 "... 曰: 否. 太陽人噎膈病, 太重於解休病, 而怒心所傷者, 太重於哀心所傷也, 太陽人, 哀心深着, 則傷表氣, 怒心暴發, 則傷裏氣, 故解休表證, 以戒哀遠怒兼言之也. 曰: 然則少陽人, 怒性, 傷口膀胱氣, 哀情, 傷腎大腸氣, 少陰人, 樂性, 傷目膈氣, 喜情, 傷脾胃氣, 太陰人, 喜性, 傷耳腦顛氣, 樂情, 傷肺胃腕氣乎. 曰: 然."

11) 『東醫壽世保元』 病證論 篇名の 변화

		「甲午本」	「辛丑本」
少陰人	表病	外感腎病論	腎受熱表熱病論
	裏病	內觸胃病論	胃受寒裏寒病論
少陽人	表病	外感膀胱病論	脾受寒表寒病論
	裏病	內觸大腸病論	胃受熱裏熱病論
太陰人	表病	外感腦顛病論	胃腕受寒表寒病論
	裏病	內觸胃腕病論	肝受熱裏熱病論
太陽人	表病	外感腰脊病論	外感腰脊病論
	裏病	內觸小腸病論	內觸小腸病論

이라 할 수 있으며, 太少陰陽人의 偏小한 부위를 손상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세 번째, 情뿐만 아니라 性 또한 병인병리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情이 暴發하는 것뿐만 아니라 性이 深着한 것도 경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太陽人內觸小腸病論』의 해당 내용 중에는 性深着과 情暴發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상세한 表裏病 발병기전은 명확하게 언급되고 있지는 않다.

2. 『臟腑論』에 제시된 肺脾肝腎 四臟체계 내에서 性深着·情暴發과 表裏病의 발생 원리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서는 肺脾肝腎 四臟체계를 제시하고 있고, 이는 太少陰陽人의 생리와 병리를 설명하는 기본 토대가 된다. 이에 性深着과 情暴發에 의해 太少陰陽人의 表裏病 발생되는 기전도 『臟腑論』의 구도 속에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臟腑論』의 핵심 내용은 四腑에서 생성된 溫熱涼寒의 四氣가 四臟체계 내에서 처리되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이 과정 중에는 네 가지의 힘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중 중요한 두 가지는 耳目鼻口의 ‘聽視嗅味하는 힘’과 肺脾肝腎의 ‘哀怒喜樂의 힘’이며, 肺脾肝腎 각각의 사당체계 내에서 四氣의 처리 과정에 중추적인 힘을 제공한다. 耳目鼻口의 天時, 世會, 人倫, 地方을 廣博하는 聽視嗅味의 힘은 前四海의 清氣를 끄집어내어 이를 神, 氣, 血, 精으로 바꾸고 이들을 인체 후면 부위로 집어넣어 髓海, 膜海, 血海, 精海를 형성하게 한다¹²⁾. 肺脾肝腎의 事務, 交遇, 黨與, 居處를 연달하는 哀怒喜樂의 힘은 後四海의 清汁을 끄집어내어 四臟을 滋養시키며, 한편으로는 胃脘, 胃, 小腸, 大腸의 四腑를 활성화

시켜 前四海가 형성되게 한다¹³⁾.

이를 바탕으로 『太陽人內觸小腸病論』에 제시된 ‘性深着에 의해 表氣를 상하고, 情暴發에 의해 裏氣를 상한다’의 구체적인 과정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性深着에 의해 表氣를 상하는 것을 天機 관찰의 주체인 耳目鼻口와 後四海가 위치한 四焦의 후면부 부위를 들어 이것들이 손상된다고 한 것이다. 여기서 耳目鼻口는 天機를 살피는 聽視嗅味의 힘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것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위에서 언급한 耳目鼻口의 작용이 손상됨을 의미한다. 四焦의 후면부 부위를 들어 말한 것은 이곳에 後四海가 위치하고, 耳目鼻口의 聽視嗅味의 힘에 의해 神氣血精이 주입되어 後四海가 생성되는 곳이다. 『東醫壽世保元(甲午本)』에서는 ‘腹背之表裏’를 나누고 있는데, 胃脘, 胃, 小腸, 大腸 등의 四腑를 裏, 頭腦, 背脊, 腰脊, 膀胱 등의 부위를 表라 하였다. 表氣는 頭腦, 背脊, 腰脊, 膀胱 등의 氣로서 각각 溫熱涼寒의 四氣가 처리되어 後四海로 들어간 것이기에 四氣의 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氣이다. 결국, 太少陰陽人의 偏小한 四臟에서 性深着에 의해 耳目鼻口의 聽視嗅味하는 힘이 손상되어 그 작용이 약화되고, 결과로 後四海가 손상되는 과정을 가지게 된다. 太陽人은 哀性深着에 의해 太陽人鼻의 人倫을 廣博하는 嗅力이 약화되어 그 이후의 병리과정을 밟는 것이다. 이는 『東醫壽世保元(甲午本)』에서 表病의 발생 원리가 된다(Table 1).

한편, 情暴發에 의해 裏氣를 상하는 것을 人事 수행의 주체인 肺脾肝腎 四臟과 胃脘, 胃, 小腸, 大腸 등의 四腑를 들어 이것들이 손상된다고 하였다. 肺脾肝腎은 人事를 수행하는 肺脾肝腎의 哀怒喜

12)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48 “耳以廣博天時之聽力, 提出津海之清氣, 充滿於上焦爲神, 而注之頭腦爲髓, 積累爲髓海. 目以廣博世會之視力, 提出膏海之清氣, 充滿於中上焦爲氣, 而注之背脊爲膜, 積累爲膜海. 鼻以廣博人倫之嗅力, 提出油海之清氣, 充滿於中下焦爲血, 而注之腰脊爲凝血, 積累爲血海. 口以廣博地方之味力, 提出液海之清氣, 充滿於下焦爲精, 而注之膀胱爲凝精, 積累爲精海.”

13)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49 “肺以鍊達事務之哀力, 吸得髓海之清汁, 入于肺以滋肺元, 而內以擁護津海, 鼓動其氣, 凝聚其津. 脾以鍊達交遇之怒力, 吸得膜海之清汁, 入于脾以滋脾元, 而內以擁護膏海, 鼓動其氣, 凝聚其膏. 肝以鍊達黨與之喜力, 吸得血海之清汁, 入于肝以滋肝元, 而內以擁護油海, 鼓動其氣, 凝聚其油. 腎以鍊達居處之樂力, 吸得精海之清汁, 入于腎以滋腎元, 而內以擁護液海, 鼓動其氣, 凝聚其液.”

Table 1. The Principle of Occurrence of Sasang Constitutional Patterns caused by Deepening Seong and Exploding Jeong

	性深着	傷表氣	情暴發	傷裏氣
太陽人	哀性 深着	傷鼻腰脊氣 鼻의 廣博人倫之嗅力↓ 腰脊氣↓	怒情 暴發	傷肝小腸氣 肝의 鍊達黨與之喜力↓ 小腸氣↓
少陽人	怒性 深着	傷口膀胱氣 口의 廣博地方之味力↓ 膀胱氣↓	哀情 暴發	傷腎大腸氣 腎의 鍊達居處之樂力↓ 大腸氣↓
太陰人	喜性 深着	傷耳腦頤氣 耳의 廣博天時之聽力↓ 腦頤氣↓	樂情 暴發	傷肺胃脘氣 肺의 鍊達事務之哀力↓ 胃脘氣↓
少陰人	樂性 深着	傷目膂氣 目의 廣博世會之視力↓ 膂氣↓	喜情 暴發	傷脾胃氣 脾의 鍊達交遇之怒力↓ 胃氣↓

樂의 힘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것이 상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위에서 언급한 肺脾肝腎의 작용이 손상됨을 의미한다. 협의로 肺脾肝腎 滋養기능의 약화로 인해 四臟 자체 손상의 의미도 가지고 있으나, 앞의 의미가 좀 더 포괄적이다. 四腑 손상을 들어 말한 것은 肺脾肝腎의 四腑 조절 작용의 약화와 이로 인한 津膏油液 생성과 前四海의 형성 등 四腑 작용의 약화 등을 의미한다. 裏氣는 胃脘, 胃, 小腸, 大腸 등의 기로서 四腑 작용 자체와 四腑 작용으로 인해 생성되는 四氣를 포괄하여 의미한다. 결국, 情暴發에 의해 太少陰陽人의 偏小한 四黨에서 肺脾肝腎의 哀怒喜樂의 힘이 손상되어 작용이 약화되고, 결과로 四腑의 기능적 약화가 초래되는 과정을 밝게 된다. 太陽人은 怒情暴發에 의해 太陽人 肝의 黨與를 鍊達하는 喜力이 약화되어 이후의 병리과정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는 『東醫壽世保元(甲午本)』에서 裏病의 발생원리로 발전하게 된다(Table 1).

그런데 性深着과 情暴發에 의해 太少陰陽人의 四黨 중 偏小한 부위의 처리 과정이 손상되게 되는 연결고리는 좀 더 고찰이 필요하다. 즉 太陽人의 哀性深着에 의해 太陽人 鼻의 人倫을 廣博하는 嗅力이 약화되는 것과 怒情暴發에 의해 太陽人 肝의 黨與를 鍊達하는 喜力이 약화되는 기전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3. 「擴充論」에 제시된 情暴發의 정의

『擴充論』에서는 太少陰陽人의 타고난 情의 병리적인 발동과 그로 인한 偏小之臟의 손상 기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情暴發의 구체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같은 「擴充論」 내에서 제시되고 있는 太少陰陽人의 人事에 있어서의 能·不能의 문제가 연결되고 있는데¹⁴⁾, 太少陰陽人의 능하지 못한 人事 영역에서 哀怒喜樂의 情이 비정상적으로 발동하여 각각 偏小之臟이 상하게 된다고 하였다¹⁵⁾¹⁶⁾. 예를 들어 太陽人의 怒情은 “交遇를 과감하게 통합할 수 있어서 交遇에 있어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太陽人의 喜는 黨與를 바르게 세울 수 없어서 黨與에 있어서는 업신여김을 당하니, 이런 까닭으로 太陽人의 거친 怒는 交遇에 있지 않고 반드시 黨與에서 있게 된다”고 하여, 太陽人의 怒情暴發은 잘하지 못하는 黨與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제시한다. 또한 太陽人이 “黨與에서 怒情을 발동하게 되면 黨與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肝이 상하게 된다”고 하여 怒情暴發에 의해 간이 상함을

14)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3-3 “太陽之脾, 能勇統於交遇, 而太陽之肝, 不能雅立於黨與. (이하 생략)”

15)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3-5 “太陽之怒, 能勇統於交遇, 故交遇不侮也, 太陽之喜, 不能雅立於黨與, 故黨與侮也, 是故太陽之暴怒, 不在於交遇, 而必在於黨與也. 少陰之喜, 能雅立於黨與, 故黨與助也. (이하 생략)”

16)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3-6 “太陽之交遇, 可以怒治之, 而黨與不可以怒治之也, 若遷怒於黨與, 則無益於黨與, 而肝傷也. (이하 생략)”

언급하게 된다. 이는 앞서 태양인 黨與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태양인의 喜라 한 것과 연계시킨다면 결국 노정폭발이 黨與에 관여하는 태양인의 喜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태양인의 노정폭발이 黨與에서 발생하면 黨與에 관여하는 喜에 더욱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이후의 과정을 앞서 기술한 『臟腑論』의 논리와 연결시킬 수 있겠으니, 太陽人の 怒情暴發이 결국엔 肝의 黨與를 練達시키는 喜力을 손상시켜 『肝傷』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태소음양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결국 哀怒喜樂 情의 暴發을 경계하는 것은 편소한 장국의 손상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4. 『擴充論』에 제시된 性深着의 추정

太少陰陽人の 타고난 性의 병리적 발동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擴充論』에서는 情暴發처럼 性深着의 기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단지 太少陰陽人の 天機에서의 能·不能을 언급하고¹⁷⁾, 이에 이어 天機를 살피는 중에 능하지 못한 부분을 들어 神氣血精이 後四海를 채우지 못하고 이를 거쳐 肺脾肝腎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족해진다는 설명만이 있다¹⁸⁾. 이를 『四端論』에서 기술했던 臟局大小 형성 과정과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¹⁹⁾, 『擴充論』 논지의 흐름을 볼 때 선천의 臟局大小가 형성되는 과정과는 구별이 되어야 하며, 오히려 哀怒喜樂 性의 병리적 발동인 性深着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겠다. 본 내용이 天機에서의 能·不能을 언급하는 것에 바로 이어지는 것

임을 고려한다면 情暴發의 논리와 동일하게 볼 수 있겠다. 즉 불능한 天機의 영역에서 비정상적으로 哀怒喜樂의 性이 발동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太陽人은 天時를 살피는 것에는 능하나, 人倫을 살피는 것에는 그렇지 못하다. 太陽人이 天時를 잘 살필 수 있는 것은 哀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능하지 못한 人倫을 무리하게 哀性을 들어 파악하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哀性深着이라 보는 것이다. 같은 논리대로라면 少陽人은 怒性深着은 능하지 못한 地方에서 怒性을 부적절하게 발동하는 것이며, 太陰人의 喜性深着은 天時에서, 少陰人의 樂性深着은 世會에서 각각 喜性和 樂性을 부적절하게 발동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太陽人の 哀性深着, 少陽人の 怒性深着, 太陰人の 喜性深着, 少陰人の 樂性深着에 의해서 각각 능하지 못한 人倫, 地方, 天時, 世會를 파악하는 것은 더욱 취약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상의 내용을 『臟腑論』의 내용과 결부시키면 太陽人 鼻의 ‘廣博人倫之嗅力’, 少陽人 口의 ‘廣博地方之味力’, 太陰人 耳의 ‘廣博天時之聽力’, 少陰人 目的 ‘廣博世會之視力’은 약화되어 앞서 기술한 ‘性深着하면 表氣를 상한다’의 병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性深着과 情暴發의 선행 원인으로서의 心慾

性深着과 情暴發을 유발하는 선행 원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단지 天機, 人事에서 불능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불능한 영역에서 선천의 哀怒喜樂 性情이 비정상적으로 발동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四端論』에서는 “천하의 喜怒哀樂이 거칠게 동하거나 함부로 동하는 것은 모두가 행실이 진실되지 못하고 사람 알기를 밝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哀怒喜樂 性情의 병리적 발동은 知行的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였다²⁰⁾.

17)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3-2 “太陽之耳, 能廣博於天時, 而太陽之鼻, 不能廣博於人倫. (이하 생략)”

18)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3-4 “太陽之聽, 能廣博於天時, 故太陽之神, 充足於頭腦, 而歸肺者大也, 太陽之嗅, 不能廣博於人倫, 太陽之血, 不充足於腰脊, 而歸肝者小也. (이하 생략)”

19)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10 “太陽人, 哀性遠散, 而怒情促急, 哀性遠散, 則氣注肺, 而肺益盛, 怒情促急, 則氣激肝, 而肝益削, 太陽之臟局, 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 (이하 생략)”

20)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20 “... 天下喜怒哀樂之暴動浪動者, 都出於行身不誠, 而知人不明也.”

『性命論』에서는 구체적인 知行의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頤臆臍腹에는 각각 籌策, 經綸, 行檢, 度量으로 표현되는 지적 능력이 있는데²¹⁾, 동시에 驕心, 矜心, 伐心, 夸心 등의 私心이 발생하기 쉬워 이를 경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²²⁾. 頭肩腰臀에는 각각 識見, 威儀, 材幹, 方略으로 표현되는 행적 능력이 있고²³⁾, 동시에 奪心, 侈心, 懶心, 伐心 등의 慾心이 있을 수 있어 이를 경계의 대상임을 제시하였다²⁴⁾. 頤臆臍腹과 頭肩腰臀에는 본연의 지적 능력과 행적 능력이 있는데 驕矜伐夸의 私心과 奪侈懶竊의 慾心은 이러한 知行의 능력을 방해하게 된다고 하였고²⁵⁾, 이렇기에 인간은 저절로는 요순과 같은 성인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²⁶⁾. 즉 驕矜伐夸의 私心과 奪侈懶竊의 慾心은 知行을 방해하는 요소로 분명한 경계의 대상이 되고, 이들이 결국 太少陰陽人의 性深着과 情暴發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됨을 추정할 수 있다.

『擴充論』 말미에는 太少陰陽人에 따라 경계를 해야 하는 驕矜伐夸의 私心과 奪侈懶竊의 慾心을 분속하여 제시하고 있다. 太少陰陽人은 驕矜伐夸의 私心을 경계하여야만 籌策, 經綸, 行檢, 度量을 갖출 수 있다고 하였고²⁷⁾, 奪侈懶竊의 욕심을 경

계하여야만 識見, 威儀, 材幹, 方略을 갖출 수 있다고 하였다²⁸⁾. 이 내용이 갖는 의미는 결국은 驕矜伐夸의 私心과 奪侈懶竊의 慾心으로 대별되는 心慾을 어떻게 경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며, 한편으로는 사심과 욕심을 경계하여 드러나게 되는 효과에 대한 것인데, 心慾의 경계는 곧 본연의 지적 능력과 행적 능력의 발현과 연계된다. 동무의 병리관이 性深着과 情暴發에 의한 표리병의 발생이 그 핵심이라면, 수양론에 해당하는 위 내용은 표리병증의 병리기전인 性深着과 情暴發의 차단에 있으며, 그 선행 원인으로 心慾의 차단에 있을 것이다. 즉 驕矜伐夸의 私心과 奪侈懶竊의 慾心의 제어는 性深着과 情暴發의 차단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6. 天機 人事의 能 · 不能의 문제

性深着과 情暴發의 기저에는 太少陰陽人의 天機와 人事에서의 能 · 不能의 문제가 선행한다. 물론 天機와 人事에서의 能 · 不能 자체가 병리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이러한 天機와 人事에서의 能 · 不能을 토대로 心慾이 발동했을 때 性深着과 情暴發의 병리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性深着과 情暴發의 병리적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太少陰陽人의 天機와 人事에서의 能 · 不能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과 그 의미를 규정해야 한다.

우선 이와 관련하여 『擴充論』에 제시된 논리의 흐름이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는데, 太少陰陽人의 天機와 人事에서의 能 · 不能의 문제를 기술하는데 앞서 太少陰陽人의 타고난 哀怒喜樂의性情이 후천적으로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²⁹⁾. 太少陰陽人의 서로 다른 哀

之腹, 若無夸心, 絕世之度量, 必在於此也.”

21)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1-7 “頤有籌策, 臆有經綸, 臍有行檢, 腹有度量.”
 22)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1-8 “籌策不可驕也, 經綸不可矜也, 行檢不可伐也, 度量不可夸也.”
 23)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1-9 “頭有識見, 肩有威儀, 腰有材幹, 臀有方略.”
 24)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1-10 “識見必無奪也, 威儀必無侈也, 材幹必無懶也, 方略必無竊也.”
 25)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1-27 “... 頤臆臍腹之中, 自*有不息之知, 如切如磋*, 而驕矜伐夸之私心, 卒然敗之, 則自棄其知, 而不能博通也, 頭肩腰臀之下, 自有不息之行, 赫兮咥兮*, 而奪侈懶竊之慾心, 卒然陷之, 則自棄其行, 而不能正行也.”
 26)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1-26 “人之頤臆臍腹之中, 誣世之心每每隱伏*也, 存其心養其性*然後, 人皆可以為堯舜之知也, 人之頭肩腰臀之下, 罔民之心種種暗藏也, 修其身立其命然後, 人皆可以為堯舜之行也, 人皆自不為堯舜者 以此.”
 27)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3-16 “太陰之頤, 宜戒驕心, 太陰之臆, 若無驕心, 絕世之籌策, 必在於此也. 少陰之臆, 宜戒矜心, 少陰之臆, 若無矜心, 絕世之經綸, 必在於此也. 太陽之臍, 宜戒伐心, 太陽之臍, 若無伐心, 絕世之行檢, 必在於此也. 少陽之腹, 宜戒夸心, 少陽

28)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3-17 “少陰之頭, 宜戒奪心, 少陰之頭, 若無奪心, 大人之識見, 必在於此也. 太陰之肩, 宜戒侈心, 太陰之肩, 若無侈心, 大人之威儀, 必在於此也. 少陽之腰, 宜戒懶心, 少陽之腰, 若無懶心, 大人之材幹, 必在於此也. 太陽之臀, 宜戒竊心, 太陽之臀, 若無竊心, 大人之方略, 必在於此也.”
 29)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3-1 “太陽人, 哀性遠散, 而怒

怒喜樂의性情은天機를 살피는 과정과人事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중에 발동한다고 하였다. 특히欺와侮에 대해서는哀와怒, 助와保에 대해서는喜와樂의性과情이 발동하게 된다고 하였다. 한편太少陰陽人의天機에서의能·不能은天時와人倫, 世會와地方이 서로 대대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人事에서의能·不能에 있어서는事務와居處, 그리고交遇와黨與가 서로 대대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상의太少陰陽人性情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요소들을 요약하면 (Table 2)와 같다.

1) 耳目鼻口의 특징

이중耳目鼻口의 특징은‘遠散’, ‘宏抱’, ‘廣張’, ‘深確’이라 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는‘哀性遠散’ 등으로 기술되고 있으나 그 주체가耳目鼻口가 되므로 이들을耳目鼻口의 특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耳目鼻口가天機를 살피는 데 있어 주체가 되고, 이를 인식과 지각의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遠散’, ‘宏抱’, ‘廣張’, ‘深確’ 등은 인식과 지각의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耳가天時를 살피는 것은 耳가‘遠散’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며, 目이世會를 살피는 것은 目이‘宏抱’한 특징을, 鼻가人倫을 살피는 것은 鼻가‘廣張’한 특징을, 口가地方을 살필 수 있는 것은 口가‘深確’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2) 肺脾肝腎의 특징

肺脾肝腎의 특징은「四端論」에 제시된‘直而伸’, ‘栗而包’, ‘寬而緩’, ‘溫而畜’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겠다³⁰⁾. 肺가事務에敏達한 것은 肺가‘直而伸’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며, 脾가交遇到勇統한 것은 脾가‘栗而包’의 특징을, 肝이黨與에雅立하는 것은 肝이‘寬而緩’의 특징을, 腎이居處에恒定할 수 있는 것은 腎이‘溫而畜’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3) 哀怒喜樂의 특징

哀怒喜樂의 특징을 분석해보면 哀와怒는欺와侮로 표현한 부정적인 상황을 보고 발동하고, 喜와樂은助와保로 표현되는 긍정적인 상황을 보고 발동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부정적인 것을 보고 발동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배제시키기 위한 기제일 것이며, 긍정적인 것을 보고 발동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수용하는 기제임을 유추할 수 있다.

4) 天機의 특징

天機의 네 가지에 대한太少陰陽人의能·不能 관계를 보면天時와人倫, 世會와地方이 서로 대응하고 있으니, 이 자체가天時와人倫, 世會와地方 간에 대대 관계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겠다. 한편 그에

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Seong and Jeong

性	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耳目鼻口가天機를 살피는 과정 중에 발동한다. • 인식과 지각의 과정 중에 발현된다. • 살피는 주체인耳目鼻口의 특징이 반영된다. • 哀怒喜樂의 특징이 반영된다. • 살핌의 대상인天機의 속성이 반영된다. • 天時와人倫, 世會와地方가 서로待對가 되는 특징이 반영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肺脾肝腎이 人事를 행하는 과정 중에 발동한다. • 사회적 행동의 과정 중에 발현된다. • 행하는 주체인肺脾肝腎의 특징이 반영된다. • 哀怒喜樂의 특징이 반영된다. • 행함의 대상인 人事의 속성이 반영된다. • 事務와居處, 交遇와黨與가 서로待對가 되는 특징이 반영된다.

情促急, 哀性遠散者, 太陽之耳察於天時, 而哀衆人之相欺也, 哀性非他, 聽也, 怒情促急者, 太陽之脾行於交遇, 而怒別人之侮己也, 怒情非他, 怒也. ... (이하 생략)

30)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11 “肺氣直而伸, 脾氣栗而包, 肝氣寬而緩, 腎氣溫而畜”

내재되어 있는 원리는 다음과 같은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格致彙儒略』『天勢』에는 “天勢는 악한 것을 기울게 하려하고, 世會는 이로움을 일으키려 하며, 人倫은 선한 것을 쌓으려 하고, 地方은 살아있는 것을 지키려고 한다. 악한 것을 기울게 하려 한다는 ‘勢’는 智가 행해지는 ‘勢’인 것이며, 이로움을 일으키려 한다는 ‘會’는 禮가 행해지는 ‘會’인 것이고, 선한 것을 쌓으려 한다는 ‘倫’은 義가 행해지는 ‘倫’인 것이며, 살아있는 것을 지키려 한다는 ‘方’은 仁을 행해지는 ‘方’인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³¹⁾. 즉 天機의 네 가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고 있는 내용인데, 天時, 世會, 人倫, 地方에 智, 禮, 義, 仁을 각각 배속시키고 있다. 耳目鼻口가 天機를 살핀다는 의미에는 단순한 인간이 살아가는 시공간적인 무대에 해당하는 天機를 살핀다는 의미 이상으로 天機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 본성의 원리, 즉 智, 禮, 義, 仁을 지각하고 인식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있게 된다. 이에 인간 본성의 원리인 智, 禮, 義, 仁의 상호 관계를 검토하여 天時와 人倫, 世會와 地方의 대대 관계를 유추해볼 수도 있다³²⁾.

5) 人事의 특징

人事의 네 가지인 事務, 交遇, 黨與, 居處 등은 『擴充論』의 내용을 참고하여 해석해볼 수 있다³³⁾³⁴⁾³⁵⁾³⁶⁾. 교우는 ‘交遇生疎人’이라 하여 생소한 사

람과의 인간관계를, 당여는 ‘黨與親熟人’이라 하여 친숙한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이에 交遇와 黨與는 ‘나(我)’와 ‘다른 사람(他)’와의 인간관계를 의미하고, 생소한 사람과의 관계는 공적인 인간관계로, 친숙한 사람과의 관계는 사적인 인간관계로 이해할 수 있겠다. 事務는 ‘出外興事務’이라 하여 외적인 일처리를, 居處는 ‘主內做居處’이라 하여 내적인 일처리를 시사하고 있다. 이에 事務와 居處는 ‘나(我)’를 중심으로 해나가는 일처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公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에 事務와 居處, 交遇와 黨與가 서로 대대가 되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性情 특징, 耳目鼻口의 특징, 肺脾肝腎의 특징, 天機 각각의 특징, 人事 각각의 특징을 조합하여 본다면 太少陰陽人の 타고난 哀怒喜樂의 性情이 있기에 天機와 人事에 대한 能·不能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太陽人은 哀性을 타고나고 天機를 살피는 과정 중에 哀性이 발동하기에 天時를 살피는 데는 능숙하지만 人倫을 살피는 데에는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少陰人은 喜情을 타고나고 人事를 행하는 과정 중에 喜情이 발동하기에 黨與에서는 능숙하지만 交遇에서는 그렇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단 이상의 논리를 임상적으로 활용하게 위해서는 性情 특징, 耳目鼻口의 특징, 肺脾肝腎의 특징, 天機 각각의 특징, 人事 각각의 특징 등에 실제적인 해석이 필요하겠다.

7. 太少陰陽人の 性氣와 情氣

『擴充論』에서는 太少陰陽人の 性氣와 情氣가 제시되고 있다³⁷⁾³⁸⁾. 이를 제시하는 과정과 전후 맥락

31) 『格致彙儒略』『天勢』“天勢傾惡也, 世會興利也, 人倫修善也, 地方保生也. 傾惡之勢, 行智之勢也, 興利之會, 行禮之會也, 修善之倫, 行義之倫也, 保生之方, 行仁之方也.”

32) 전체 논지에서 벗어나 자세한 기술은 생략하였다.

33) 『東醫壽世保元』『擴充論』3-12 “太陽人, 謹於交遇, 故恒有交遇生疎人慮患之怒心, 此心出於秉彜之敬心也, 莫非至善, 而輕於交遇, 故每爲親熟黨與人所陷, 而偏怒傷臟, 以其擇交之心不廣故也.”

34) 『東醫壽世保元』『擴充論』3-13 “少陰人, 謹於黨與, 故恒有黨與親熟人擇交之喜心, 此心出於秉彜之敬心也, 莫非至善, 而輕於交遇, 故每爲生疎交遇人所誣, 而偏喜傷臟, 以其慮患之心不周故也.”

35) 『東醫壽世保元』『擴充論』3-14 “少陽人, 重於事務, 故恒有出外興事務之哀心, 此心出於秉彜之敬心也, 莫非至善, 而不謹於居處, 故每爲主內做居處人所陷, 而偏哀傷臟, 以其重外而輕內故也.”

36) 『東醫壽世保元』『擴充論』3-15 “太陰人, 重於居處,

故恒有主內做居處之樂心, 此心出於秉彜之敬心也, 莫非至善, 而不謹於事務, 故每爲出外興事務人所誣, 而偏樂傷臟, 以其重內而輕外故也.”

37) 『東醫壽世保元』『擴充論』3-7 “太陽之性氣, 恒欲進而不欲退, 少陽之性氣, 恒欲舉而不欲措, 太陰之性氣, 恒欲靜而不欲動, 少陰之性氣, 恒欲處而不欲出.”

38) 『東醫壽世保元』『擴充論』3-9 “太陽之情氣, 恒欲爲雄而不欲爲雌, 少陰之情氣, 恒欲爲雌而不欲爲雄, 少

을 살펴보면 太少陰陽人의 타고난 哀怒喜樂의 性情이 어떻게 후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天機와 人事 하위 영역에서의 能·不能의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제시된 이후에 太少陰陽人의 性氣와 情氣 특징이 기술된다. 이에 性氣와 情氣는 타고난 哀怒喜樂 性情의 단순한 발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즉 性氣는 太少陰陽人 哀怒喜樂의 性으로 인해 天機를 살피는 데 있어서 能·不能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이 행동특징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며, 情氣는 太少陰陽人의 哀怒喜樂의 情으로 인해 人事에 있어서의 能·不能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이 행동특징으로 드러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8. 哀怒喜樂 性情의 편차 발생의 원인

『四端論』에서는 ‘人稟臟理’를 제시하며 바로 太少陰陽人의 臟局大小를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臟理’는 性理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이를 『醫源論』에서는 ‘臟腑性理’라 하였다. 臟理와 太少陰陽人의 臟局大小 사이의 연결고리는 哀怒喜樂의 性情이 된다. 즉 타고나는 臟理가 서로 다르기에 哀怒喜樂 性情의 서로 다름이 발생하고 이것이 인체의 발생과 발달 과정 중에 서로 다른 臟局大小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太少陰陽人의 哀怒喜樂 性情이 서로 다른 것은 性理의 지위를 가지는 臟理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이다⁷.

『性命論』에서는 耳目鼻口가 天機를 살피는 과정 중에 好善之心이 발생하고, 肺脾肝腎이 人事를 행하는 과정 중에 惡惡之心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는 인간이면 누구나 예외 없이 가지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好善之心과 惡惡之心이 발동하게 되는 근거는 心속에 그 발출의 근거가 있기 때문이고 이를 性理라 할 수 있다. 한편 好善之心과 惡惡之心의 위치는 『四端論』과 『擴充論』에서 제시된

哀怒喜樂의 性情과 같다. 즉 哀怒喜樂 性情은 好善之心과 惡惡之心이 사람마다 서로 다른 양상으로 발현되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哀怒喜樂의 性情이 臟理를 근거로 발하게 되는 것은 好善之心과 惡惡之心이 性理를 근거로 발하게 되는 것과 같다. 性理 또는 臟理는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것이 되고, 단지 그 드러나는 모습이 서로 다를 뿐이며, 이로 인해 哀怒喜樂의 性情과 肺脾肝腎 臟局大小의 다름이 발생하는 것이다. 단 여기서 서로 다르다는 것이 좋고 나쁨의 가치론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9. 性深着과 情暴發의 예방

『擴充論』에서는 太少陰陽人의 驕矜伐夸의 私心과 奪侈懶竊의 慾心을 경계해야 하고, 이를 통해 籌策, 經綸, 行檢, 度量 등의 지적 능력과 識見, 威儀, 材幹, 方略 등의 행적 능력이 발휘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性深着과 情暴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2가지 관점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性深着과 情暴發의 선행요인으로서 心慾을 절제하는 것이다. 둘째는 知行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며, 이는 불능한 天機와 人事를 극복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性命論』에서는 이러한 知行의 요소들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기에 ‘行其知’, ‘行其行’이라 표현하고 있다³⁹⁾. 그리고 이러한 知行의 능력이 잘 발휘된 상태를 ‘博通’과 ‘獨行(正行)’이라 한 것이며⁴⁰⁾, ‘博通’과 ‘獨行’의 궁극적인 대상을 『性命論』에서는 각각 ‘養其性’과 ‘立其命’으로 제시했던 것이다⁴¹⁾⁴²⁾. 그리고 이러한 知行의 요소

39)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1-11 “... 頷臆膺腹行其知也, 頭肩腰臂行其行也.”

40)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1-13 “籌策博通也, 識見獨行也, 經綸博通也, 威儀獨行也, 行檢博通也, 材幹獨行也, 度量博通也, 方略獨行也.”

41)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1-14 “大同者天也, 各立者人也, 博通者性也, 獨行者命也.”

42)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1-26 “... 人之頷臆膺腹之中, 誣世之心每每隱伏也, 存其心養其性然後, 人皆

陽之情氣, 恒欲外勝而不欲內守, 太陰之情氣, 恒欲內守而不欲外勝.”

들이 잘 발휘되기 위해 心慾인 私心과 慾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선행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性命論』에서는 ‘存其心’과 ‘修其身’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私心과 慾心에 선행하는 放心과 逸心을 제어하는 의미를 가진다⁸.

IV. 考察

이상의 검토를 통해 太少陰陽人의 타고난 性情과 그 병리적인 발동인 性深着과 情暴發의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1. 太少陰陽人의 性과 情

타고나는 서로 다른 臟理(또는 性理)에 의해 太少陰陽人은 서로 다른 哀怒喜樂의 性情을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해 인체의 발생과 발달 과정 중에 서로 다른 肺脾肝腎 臟局大小가 만들어진다. 또한 서로 다른 哀怒喜樂의 性情은 天機와 人事의 하위 영역에서의 能·不能의 문제로 발현되며, 이로 인해 서로 다른 性氣와 情氣의 특징이 나타나게 한다. 그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性理에 기반하여 好善之心과 惡惡之心이 발동한다.
- ② 太少陰陽人은 서로 다른 性理[=臟理]를 타고난다.
- ③ 서로 다른 性理[臟理]에 의해 서로 다른 양상의 好善之心과 惡惡之心이 발동하게 되니 이를 각각 哀怒喜樂의 性과 情이라 한다.
- ④ 서로 다른 哀怒喜樂의 性과 情에 의해 서로 다른 肺脾肝腎 臟局의 大小가 발생한다.

- ⑤ 서로 다른 哀怒喜樂의 性과 情에 의해 天機와 人事 각각의 하위 영역에서 서로 다른 能·不能의 문제가 발생한다.
- ⑥ 天機와 人事에서의 能·不能의 문제는 각각 서로 다른 性氣와 情氣의 특징으로 드러난다.

이와 같은 것을 임상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들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표현으로 해석되어야 하겠다. 그 중 핵심적인 것은 太少陰陽人의 哀怒喜樂 性情과 性氣, 情氣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다. 이를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1) 太少陰陽人의 性

哀怒喜樂의 性은 지각과 인식 차원에서의 반응 양식이라 볼 수 있고, 이에는 哀, 怒, 喜, 樂의 서로 다른 네 가지 특성이 있는 것이다. 哀와 怒는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배타적 기제라 할 수 있으며, 喜와 樂은 긍정적인 요소에 대한 수용적 기제라 할 수 있다. 감각기관인 耳目鼻口의 특징을 나타내는 遠散, 宏抱, 廣張, 深確 등은 哀怒喜樂으로 드러나는 性의 지각, 인식 차원에서의 반응 특징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遠散’은 그 인식의 범위가 크고 빠른 것을 의미하고, ‘宏抱’는 인식의 방법이 폭넓은 수용성에 있음을 의미한다. 哀와 怒가 모두 배타적 기제이지만 哀의 성격을 가진 性은 불필요하고 부적합한 요소에 대한 철저한 배제를 통해 天時를 빠르고 크게 인식해 나가는 것이며, 怒의 성격을 가진 性은 불필요하고 부적합한 요소들을 배제시키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만을 폭넓게 수용하고 수렴시켜 世會를 크고 넓게 인식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哀性의 특징은 사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체를 빠르고 직접적으로 파악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怒性의 특징은 여러 영역의 공통된 요소들을 폭넓게 파악하여 찾아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廣張’은 그 인식의 범위가 넓으면

可以爲堯舜之知也, 人之頭肩腰腎之下, 罔民之心種種暗藏也, 修其身立其命然後, 人皆可以爲堯舜之行也, 人皆自不爲堯舜者 以此.”

서도 개별적인 요소 하나하나에 두루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深確’은 그 인식의 범위는 좁지만 깊이 파고들어 자세하고 확실하게 파악해 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喜와 樂은 모두 수용적 기제이지만 喜의 성격을 가진 性은 필요하고 적합한 요소들을 두루 살펴 수용해 나가 人倫을 넓게 두루 파악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樂의 성격을 가진 性은 필요하고 적합한 요소들을 천착하여 地方을 깊고 확실하게 파악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이상의 추론을 요약하면 (Table 3)과 같다.

2) 太少陰陽人の 性氣

이에 衰性, 怒性, 喜性, 樂性을 타고나는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은 각각 天時, 世會, 人倫, 地方을 살피는 것은 능숙하지만 그 반대속성을 가지는 人倫, 地方, 天時, 世會의 파악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게 된다. 타고나는 衰怒喜樂의 性에 의해 天機의 인식과 지각에 있어서의 能·不能이 발생하고 이것이 행동특징으로 드러나게 된 것을 性氣라 한다. 이러한 특징들을 반영, 추정하여 해석하면 (Table 4)와 같다.

Table 3. The Characteristics of *Seong* of Four Constitutions

性	耳目鼻口특징	天機에서의 衰怒喜樂 性的 발동		天機에 대한 인식 특징	衰怒喜樂 性的 의미	
太陽人	衰性 遠散	耳 遠散	察於 天時 衆人之相欺	衰性 =聽	멀다/빠르다 배제	일반적인 원칙에 위배되면 배제 전체(일반)를 빠르게 파악
少陽人	怒性 宏抱	目 宏抱	察於 世會 衆人之相侮	怒性 =視	크다/수용하여 수렴시키다 배제	보편적인 원칙에 위배되면 배제 한정되어 치우치지 않고 맥락과 핵심을 파악
太陰人	喜性 廣張	鼻 廣張	察於 人倫 衆人之相助	喜性 =嗅	넓다/두루 미치다 수용	개별적인 원칙에 부합되면 수용 전체를 구성하는 개개 요소를 두루 검토하여 파악
少陰人	樂性 深確	口 深確	察於 地方 衆人之相保	樂性 =味	깊다/확실하게 하다 수용	특수한 원칙에 부합되면 수용 한정되고 특수한 요소를 깊고 확실하게 파악

Table 4. The Characteristics of *Seong-Manifestation* of Four Constitutions

耳目鼻口 특징	性	能한 天機영역	不能한 天機영역	性氣	性氣의 의미	
太陽人	耳 遠散	衰性	天時	人倫	恒欲進 而不欲退	걸을 돌아보지 않고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며, 불필요하다 판단하는 것에 머물러 주저하지 않는다
少陽人	目 宏抱	怒性	世會	地方	恒欲舉 而不欲措	여러 서로 다른 특수한 요소들을 두루 살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맥락과 공통점을 찾아내려 하고, 한정되고 제한된 요소들의 특수성과 차이점에 깊게 주목하지 않는다.
太陰人	鼻 廣張	喜性	人倫	天時	恒欲靜 而不欲動	넓으면서도 개별적인 하나하나에 두루 미치며 뛰어난 수용력을 발휘하나 바로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었다 생각되었을 때 최종적인 판단에 다다른다.
少陰人	口 深確	樂性	地方	世會	恒欲處 而不欲出	특정의 상황에 집중하여 깊고 치밀하게 파고 들어가며, 정하여진 범위를 쉽게 넘어서려 하지 않는다.

3) 太少陰陽人의 情

太少陰陽人의 人事에 있어서의 能·不能은 哀怒喜樂의 특성에 따른 情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고, 哀怒喜樂의 情은 사회적 행동인 人事에서의 서로 다른 반응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에 哀, 怒, 喜, 樂의 서로 다른 네 가지 특성이 있는 것이고 그 기본적인 속성은 性일 때와 같다. 중요 내장기관인 肺脾肝腎의 특징을 나타내는 ‘直而伸’, ‘栗而包’, ‘寬而緩’, ‘溫而畜’ 등은 사회적 행동인 人事에 대한 행동 특징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交遇를 주관하는 脾의 ‘栗而包’는 공적인 인간관계에 있어 엄격하게 포용해간다는 의미로, 黨與를 주관하는 肝의 ‘寬而緩’은 사적인 인간관계에서 너그럽고 완만하게 만들어나간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太陽人의 怒情은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있어 불필요하고 부적합한 요소를 배제시켜 나가는 것으로 작동한다. 공적인 차원에서 타인과의 관계는 엄격하고 바르며 공정해야 한다. 이에 부합되는 太陽人의 타고난 怒情은 太陽人이 交遇에 능숙할 수 있게 되는 선천적인 요인이 된다. 少陰人의 喜情은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있어 필요하고 적합한 요소를 수용해 나가는 것으로 작용한다. 사적인 차원에서의 인간관계는 너그럽고 완만하게 형성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부합되는 少陰人의 타고난 喜情은 少

陰人이 黨與에 능숙할 수 있게 되는 선천적인 요인이 된다.

事務를 주관하는 肺의 ‘直而伸’은 공적인 일처리에 있어 과감하고 거침없는 추진력을 발휘하는 의미로, 居處를 주관하는 腎의 ‘溫而畜’은 사적인 일처리에 있어 완만하면서도 견고하게 일을 해나간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少陽人의 哀情은 공적인 영역에서의 일처리를 빠르게 달성해 나가는데 있어 불필요하고 부적합한 요소를 배제시켜 나가는 것으로 작동한다. 공적인 차원에서의 일은 속도와 결과가 중요하다. 이에 부합되는 少陽人의 타고난 哀情은 少陽人이 事務에 능숙할 수 있게 되는 선천적인 요인이 된다. 太陰人의 樂情은 사적인 영역에서의 일에 있어 필수적이고 적합한 요소를 수용시켜 나가는 것으로 작동한다. 사적인 영역에서의 일은 내실과 과정이 중요하다. 이에 부합되는 太陰人의 타고난 樂情은 太陰人이 居處에 능숙할 수 있게 되는 선천적인 요인이 된다. 이상의 추론을 요약하면 (Table 5)와 같다.

4) 太少陰陽人의 情氣

타고나는 哀怒喜樂의 情에 의해 다양한 사회적 행동을 요약한 人事의 하위 영역에 있어 能·不能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이 행동특징으로 드러나게 된

Table 5. The Characteristics of Jeong of Four Constitutions

情	肺脾肝腎 특징	人事에서의 哀怒喜樂 情의 발동	人事에서의 행동 특징	哀怒喜樂 情의 의미
太陽人	怒情 促急 脾 栗而包	行於交遇 怒 別人之侮己	怒情 =怒 엄격/목적 배제	공적인 관계형성에 위배되는 것 배제 인간관계에서 엄격하면서도 목적을 중시 관계의 목적이 중요
少陽人	哀情 促急 肺 直而伸	行於事務 哀 別人之欺己	哀情 =哀 과감/추진력 배제	공적인 일처리에 위배되는 것 배제 과감하고 거침없는 추진력 결과와 속도 중요
太陰人	樂情 促急 腎 溫而畜	行於居處 樂 別人之保己	樂情 =樂 내실/성취 수용	사적인 일처리에 부합되는 것 수용 완만하면서도 견고한 일처리 과정과 내실 중요
少陰人	喜情 促急 肝 寬而緩	行於黨與 喜 別人之助己	喜情 =喜 관용/인정 수용	사적 관계형성에 부합되는 것 수용 인간관계에서 관용과 인정을 중시 관계의 유지가 중요

Table 6. The Characteristics of Jeong-Manifestation of Four Constitutions

		情	能한 人事영역	不能한 人事영역	情氣	情氣의 의미
太陽人	脾 栗而包	怒情	交遇	黨與	恒欲爲雄 而不欲爲雌 (進)	앞에 서서 주도적으로 장악하여 거침없이 소통해 나가며, 뒤에 서서 치밀하고 진중하게 지지하려 하지 않는다.
少陽人	肺 直而伸	哀情	事務	居處	恒欲外勝 而不欲內守 (外)	과감성을 발휘하여 공격 영역에서 목표한 일의 완수를 강조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안으로 완만하게 내실을 다져나가는 것은 놓치기 쉽다
太陰人	腎 溫而畜	樂情	居處	事務	恒欲內守 而不欲外勝 (內)	사적 영역에서 완만하게 내실을 다져나가는 것에 치중하고, 과감하게 외부로 펼쳐나가야 하는 일을 완수하는 것에 소홀하기 쉽다.
少陰人	肝 寬而緩	喜情	黨與	交遇	恒欲爲雌 而不欲爲雄 (退)	뒤에 서서 치밀하고 진중하게 지지하려 하며, 앞에 서서 주도적으로 소통하려 하지는 않는다.

것이 情氣이다. 위 특징들을 반영하여, 그 의미를 추정하여 해석해보면 (Table 6)과 같다.

⑤ 偏小之臟의 表氣와 裏氣를 손상시켜 體質病證을 발생시킨다.

2. 太少陰陽人の 性深着·情暴發

太少陰陽人の 타고난 서로 다른 哀怒喜樂의 性情은 心慾에 의해 性深着과 情暴發의 병리적인 발동을 하게 되고, 이에 의해 타고난 偏小之臟을 손상시켜 體質病證을 발생시킨다. 그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인간은 타고난 性理[臟理]를 버리고 心慾에 빠져들기 쉽다.
- ② 心慾에 의해 타고난 性情의 비정상적인 발동 상태인 性深着과 情暴發이 발생한다.
 - 驕矜伐夸의 私心은 性深着을 유발한다.
 - 奪侈懶竊의 慾心은 情暴發을 유발한다.
- ③ 性深着과 情暴發은 太少陰陽人 각각의 偏小한 肺脾肝腎 四黨의 耳目鼻口의 天機를 廣博하는 힘과 肺脾肝腎의 人事를 練達하는 힘을 약화시킨다.
- ④ 太少陰陽人の 偏小한 肺脾肝腎 四黨의 溫熱涼寒 四氣의 처리 과정에 장애를 초래한다.

太少陰陽人の 性深着과 情暴發, 그리고 이들이 유발하는 심욕 각각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석을 유추해보면 다음과 같다.

1) 太少陰陽人の 性深着

太陽人の 哀性深着은 불능한 天機 영역인 人倫을 지각, 인식하는데 있어 그에 적합하지 못한 哀性を 비정상적으로 발동시키는 것이다. 이로 인해 人倫의 지각, 인식에 있어 곤란함이 더욱 심해진다. 哀性の 비정상적인 발동인 哀性深着을 유발하는 것은 太陽人の 伐心으로부터 비롯된다. 개별적인 요소[人倫]들의 주도면밀한 파악이 아닌 자기만의 기준에 입각해 '무차별적인 칼날을 휘두르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少陽人の 怒性深着은 불능한 天機 영역인 地方을 지각, 인식하는데 있어 地方에는 적합하지 못한 怒性を 비정상적으로 발동시키는 것이다. 이로 인해 地方의 지각, 인식에 있어 곤란함이 더욱 심해진다. 비정상적인 怒性深着을 유발하는 것은 少陽人の

夸心으로부터 비롯된다. 한정되고 특수한 요소들[地方]에 대한 깊은 천착이 없이 ‘수박 겉핥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太陰人の 喜性深着은 불능한 天機 영역인 天時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못한 喜性을 비정상적으로 발동시키는 것이다. 이로 인해 天時의 지각, 인식에 있어 곤란함이 더욱 심해진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喜性深着을 유발하는 것은 太陰人の 驕心으로부터 비롯된다. 크고 넓은 일반적인 요소들에 대한 크고 빠른 인식은 뒤로 하고 오로지 작고 지엽적인 것에 가려 헤어 나오지 못하기에 발생하는 심욕이라 할 수 있다.

少陰人の 樂性深着은 불능한 天機 영역인 世會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못한 樂性을 비정상적으로 발동시키는 것이다. 이로 인해 世會의 지각, 인식에 있

어 그 곤란함은 더욱 커진다. 비정상적인 樂性深着을 유발하는 것은 少陰人の 矜心으로부터 비롯된다. 한정된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에 집착하여 보편되게 흐르는 맥락을 놓치는 것이다. 矜心은 한정되고 지엽적인 특수한 것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상을 도해하면 (Figure 1)과 같다.

2) 太少陰陽人の 心慾과 性深着

太少陰陽人の 性深着을 유발하는 驕矜伐夸의 私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이를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고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하다. 위 내용에 기반하여 그 의미를 추정하면 다음의 (Table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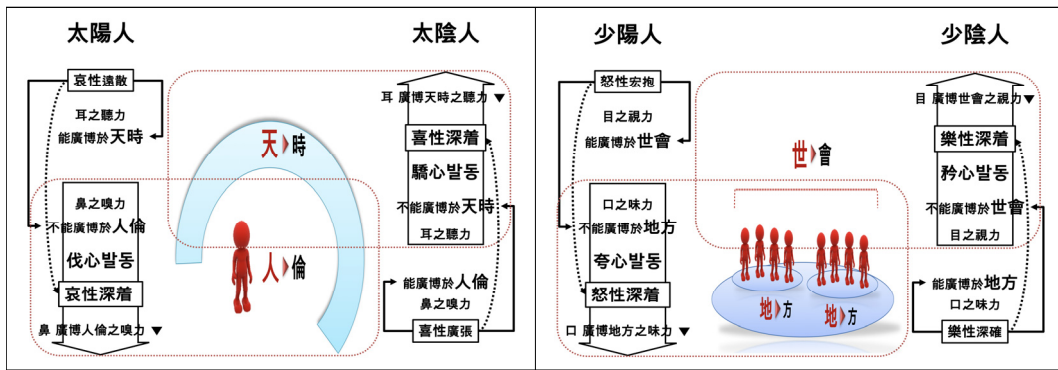


Figure 1. The process by which Deepening *Seong* occurs

Table 7. Covetous Desire and Deepening *Seong* of Four Constitutions

心慾	性深着	문제되는 天機영역	驕矜伐夸의 의미
太陽人 伐心	哀性深着	人倫	개별적인 요소들에 대한 관심과 관찰이 부족하고 스스로 세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을 무분별하게 배제하려는 것
少陽人 夸心	怒性深着	地方	특수하고 한정된 요소들을 깊이 관찰하며 생각하지 않고 미리 넘겨짚어 어렵잡아 헤아리는 것
太陰人 驕心	喜性深着	天時	전체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고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만 얽매어 그것이 전부인양 잘난 체하며 겸손함이 없는 것
少陰人 矜心	樂性深着	世會	여럿을 아우르는 핵심과 맥락을 파악하려 하지 않고 특수하고 한정된 것에 집착하는 것

3) 太少陰陽人の 情暴發

太陽人の怒情暴發은 불능한 人事 영역인 黨與 에는 적합하지 못한 怒情을 비정상적으로 발동시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적인 인간관계의 형성인 黨與 에 있어 곤란함을 면치 못하게 된다. 비정상적인 怒情暴發을 유발하는 것은 太陽人の竊心으로부터 비롯된다. 사적인 인간관계인 黨與에서 넉넉하고 여유 있게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지는 못하고 거침없는 소통만을 강조하며 겉으로만 그 관계를 유지하려 하는 것으로 이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몰래 훑치는 것과 같다.

少陰人 喜情暴發은 불능한 人事 영역인 交遇 에는 적합하지 못한 喜情을 비정상적으로 발동시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공적인 인간관계의 형성인 交遇 에 있어 곤란함을 면치 못하게 된다. 비정상적인 喜情暴發을 유발하는 것은 少陰人の奪心으로부터 비롯된다. 공적인 인간관계인 交遇에서 엄격하고 바르며 공정함을 갖춰 나가지 못하고 제멋대로 자신만의 좁은 소견과 아집에 빠져 그 관계를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다.

少陽人の哀情暴發은 불능한 人事 영역인 居處 에 있어 그에 적합하지 못한 哀情을 비정상적으로 발동시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적인 차원에서의 일인 居處에 있어 곤란함을 면치 못하게 된다. 哀情의

비정상적인 발동인 哀情暴發을 유발하는 것은 少陽人の懶心이다. 懶心은 안으로부터 견고하게 내실을 다져나가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본인 주도’를 망각하여 다른 가까운 사람들만을 몰아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太陰人の樂情暴發은 불능한 人事 영역인 事務 에 있어 그에 적합하지 못한 樂情을 비정상적으로 발동시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공적인 영역에서의 일처리인 事務에 있어 곤란함을 면치 못하게 된다. 樂情의 비정상적인 발동인 樂情暴發을 유발하는 것인 太陰人の侈心이다. 侈心은 공적 영역의 일처리인 事務에서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부족하고 이루어 놓은 것을 넘어서 거짓되게 꾸며 허세를 부리는 마음이다. 이상을 도해하면 다음 (Figure 2)와 같다.

4) 太少陰陽人の 心慾과 情暴發

태소음양인의 情暴發을 유발하는 奪侈懶竊의 慾心, 또한 해석이 분분하다. 위 내용에 기반하여 그 의미를 추정하면 다음의 (Table 8)과 같다.

3. 性深着과 情暴發의 예방

앞선 논리에 근거하여 體質病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性深着과 情暴發을 경계하여야 한다. 性深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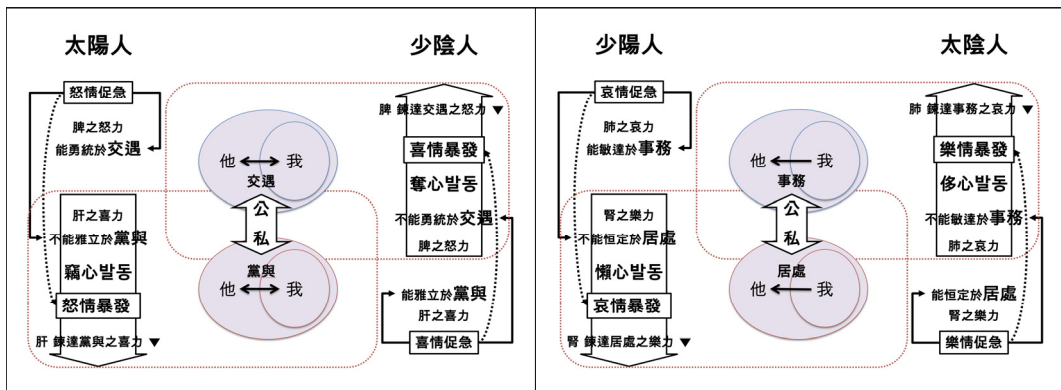


Figure 2. The process by which Exploding Jeong occurs

Table 8. Covetous Desire and Exploding *Jeong* of Four Constitutions

心慾 性深着 문제되는 人事영역	奪侈懶竊의 의미
太陽人 竊心 怒情暴發 黨與	사적인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 넓고 완만하게 두루 살피는 세밀함과 진중함이 부족하고 거침없는 소동만을 강조하여 밀어붙여 겉으로만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몰래 훔치는 것
少陽人 懶心 哀情暴發 居處	안으로부터 견고하게 내실을 다져나가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본인 주도’를 망각하여 다른 가까운 사람들만을 몰아치려는 것
太陰人 侈心 樂情暴發 事務	분수를 넘어서 겉으로만 꾸미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적 영역의 일처리인 事務에서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부족하고 이루어 놓은 것을 넘어서 거짓되게 꾸며 허세를 부리는 것
少陰人 奪心 喜情暴發 交遇	공적인 인간관계인 交遇에서 제멋대로 자신만의 좁은 기준과 원칙에 맞춰 인정과 사사로움에 의지하여 그 관계를 임의대로 주도하려는 것

과 情暴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心慾을 제어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본연의 지적 능력과 행적 능력이 발휘토록 해야 한다. 그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太少陰陽人 心慾을 경계한다.
 - 驕矜伐夸의 私心을 경계한다.
 - 奪侈懶竊의 慾心을 경계한다.
- ② 太少陰陽人 각각 필요한 知行이 발휘되도록 한다.
- ③ 太少陰陽人의 불능한 天機, 人事 영역을 극복하도록 한다.

1) 性深着的 예방

「擴充論」에서는 太陽人은 伐心을, 少陽人은 夸心을, 太陰人은 驕心을, 少陰人은 矜心을 경계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行檢, 度量, 籌策, 經綸이 발휘될 수 있다고 하였다.

太陽人의 伐心, 少陽人의 夸心, 太陰人의 驕心, 少陰人의 矜心은 각각의 지각 및 인식 능력을 방해하는 心慾이다. 각각 능하지 못한 天機의 영역에서 타고난 哀怒喜樂의 性이 비정상적으로 발동하는 性深着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능

하지 못한 天機의 영역에 필요한 哀怒喜樂 性의 기능은 더욱 약화되는 병리로 이어져 최종적으로는 體質病證이 발생하게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驕矜伐夸의 心慾을 제거하여 본연의 지적 능력을 발휘하여 능하지 못한 天機 영역을 파악할 수 있는 哀怒喜樂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太陰人의 頤, 少陰人의 臆, 太陽人의 臍, 少陽人의 腹에는 능하지 못한 天機의 영역에서 발동하기 쉬운 驕心, 矜心, 伐心, 夸心 등의 心慾이 자리 잡는 곳이기도 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籌策, 經綸, 行檢, 度量 등의 본연의 지각 및 인식 능력이 위치하는 곳이기도 하다.

太陽人은 伐心을 제거하여 지적 능력인 行檢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少陽人은 夸心을 제거하여 度量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며, 太陰人은 驕心을 제거하여 籌策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고, 少陰人은 矜心을 제거하여 經綸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驕矜伐夸의 심욕이 제거되어 본연의 지적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 것을 「擴充論」에서는 ‘絕世’의 行檢, 度量, 籌策, 經綸이라 표현하였고, 「性命論」에서는 이를 ‘博通’이라 하였다. 性深着的의 예방을 위한 行檢, 度量, 籌策, 經綸의 의미를 전후 맥락을 고려하여 추정해보면 (Table 9)와 같다.

Table 9. The Prevention of Deepening *Seong*

心慾	性深着	문제되는 天機영역	극복 방법	극복 방법(지적 능력)의 의미
太陽人 伐心	哀性深着	人倫	行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들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 • 人倫의 개별적 속성을 세세하게 분석하여 자세히 살펴보는 지적 능력
少陽人 夸心	怒性深着	地方	度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한 요소들을 깊이 천착하는 것 • 한정되고 특수한 地方을 자세하게 헤아려보는 지적 능력
太陰人 驕心	喜性深着	天時	籌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큰 안목으로 전체의 윤곽을 파악하는 것 • 지혜를 내어 天時를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파악하려는 지적 능력
少陰人 矜心	樂性深着	世會	經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럿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요소를 찾아내 그 맥락을 파악하는 것 • 크게 보는 포부와 경험을 바탕으로 世會를 파악하려는 지적 능력

2) 情暴發의 예방

『擴充論』에서는 太陽人의 竊心을, 少陽人의 懶心을, 太陰人의 侈心을, 少陰人의 奪心을 경계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方略, 材幹, 威儀, 識見이 발휘될 수 있다고 하였다.

太陽人의 竊心, 少陰人의 奪心, 少陽人의 懶心, 太陰人의 侈心은 각각의 실친 및 행적 능력을 방해하는 心慾이다. 각각 능하지 못한 人事 영역에서 타고난 哀怒喜樂의 情이 비정상적으로 발동하게 되는 情暴發의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능하지 못한 人事의 영역에 필요한 哀怒喜樂 情의 기능은 더욱 약화되어 體質病證을 유발하는 병리적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奪侈懶竊의 心慾을 제거하고 본연의 행적 능력이 발휘되도록 하여 능하지 못한 人事 영역에서 哀怒喜樂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少陰人의 頭, 太陰人의 肩, 少陽人의 腰, 太陽人의 臀에는 능하지 못한 人事의 영역에서 발동하기 쉬운 奪侈懶竊의 心慾이 자리 잡기 쉬운 곳이기도 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본연의 실친 및 행적 능력이 위치하는 곳이기도 하다.

太陽人은 竊心을 제거하여 행적 능력인 方略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少陰人은 奪心을 절제하여 그와 대응되는 행적 능력인 識見이 발휘되도록 해야 하며, 少陽人은 懶心을 제거하여 행적 능력인 材幹

이 발휘되도록 해야 하고, 太陰人은 侈心을 절제하여 대응하는 행적 능력인 威儀가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奪侈懶竊의 심욕이 제거되어 본연의 행적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는 것을 『擴充論』에서는 ‘大人’의 方略, 材幹, 威儀, 識見이라 기술하였고, 『性命論』에서는 이러한 단계를 ‘獨行’이라 표현하였다. 情暴發의 예방을 위한 方略, 材幹, 威儀, 識見의 의미를 전후 맥락을 고려하여 추정해보면 (Table 10) 과 같다.

이상을 요약하면 결국 性情修養法 또는 體質性情療法은 太少陰陽人의 性深着과 情暴發을 예방 및 관리하는 요법이다. 性深着과 情暴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선행원인인 心慾을 경계하여야 하고, 본연의 지적 능력과 행적 능력이 발휘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능하지 못한 天機와 人事의 영역을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 해석에 있어서는 최대한 근거를 가지고 해석하려고 했으나 여전히 자의적인 해석일 수 있다. 향후 문헌적인 근거와 임상적인 근거의 보완을 거치고, 전문가의 합의에 의해 그 내용이 정립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개발되어 體質性情療法이 한의임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Table 10. The Prevention of Exploding Jeong

心慾 情暴發	문제되는 人事영역	극복 방법	극복 방법(행적 능력)의 의미
太陽人 竊心 怒情暴發	黨與	方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용과 인정이 요구되는 사적인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과 계략을 마련하는 것 • 느그럽고 원만하며 인정이 개입되는 黨與에서 공사, 선후, 경중, 완급을 구별하여 상황[力]에 맞는 적절한 방법[略]을 찾아가는 행적 능력
少陽人 懶心 哀情暴發	居處	材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정과 내실이 중요한 사적인 영역의 일에서 재주를 발휘하는 것 • 사적인 영역인 居處를 속도보다는 내실 있고 탄탄하게 그리고 융통성 있고 요령 있게 다스려 나가는 행적 능력
太陰人 侈心 樂情暴發	事務	威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와 속도가 중요한 공적인 영역의 일에서 위엄 있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 •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자신감 넘치는 행적 능력
少陰人 奪心 喜情暴發	交遇	識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격함과 공정함이 요구되는 공적인 인간관계에서 분별력을 발휘하는 것 • 작은 것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기준과 아집에 빠지지 않고 識見을 바탕으로 좀 더 넓고 크게 공적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행적 능력

V. 結論

- 1.性情修養法 또는 體質性情療法은 太少陰陽人의 性深着과 情暴發을 예방 및 관리하는 요법이다.
- 2.性深着과 情暴發은 각각 능하지 못한 天機와 人事의 하위 영역에서 타고난 哀怒喜樂의 性과 情을 부적절하게 발생시키는 것이며, 그 선행 원인은 心慾이다.
- 3.性深着과 情暴發은 太少陰陽人 각각의 偏小한 肺脾肝腎 四黨의 耳目鼻口의 天機를 廣博하는 힘과 肺脾肝腎의 人事를 練達하는 힘을 약화시켜 溫熱涼寒 四氣의 처리 과정에 장애를 초래하여 體質病證을 발생시킨다.
- 4.太少陰陽人은 天機를 인식하고 人事를 행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心慾을 경계하여 知行의 능력이 발휘되도록 해야 하고, 이를 통해 각각 天機와 人事에서의 不能함을 극복하여 性深着과 情暴發을 예방해야 한다.

VI. References

1. Societ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linical Practice Guideline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Patterns. Seoul: National Institute for Korean Medicine Development. 2022. (Korean)
2.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sang medicine. 2nd Ed. Seoul: Jibmundang. 2012. (Korean)
3. Cho HS. The relationship between Seong-Jeong and Exterior and Interior Patterns. J Sasang Constutut Med. 1993;5(1):55-57. (Korean)
4. Koh WS, Lee SK, Lee EJ, Koh BH, Song IB. Study for the mechanism of exterior, interior disease by the nature and emotion. J Sasang Constutut Med. 2004;16(2):44-51. (Korean)
5. Kim JJ, Park SS. A Psychotherapy for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J Sasang Constutut Med. 2006;18(2):113-124. (Korean)
6.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 The Clinical Guide Book for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The Literature o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nd Ed. Seoul: Hanmi medical publishing.

2010. (Korean)
7. Lee JH, Lee EJ, Koh BH. Reconsideration about the Dong-Mu's Theory of Nature and Emotion. J Sasang Constutut Med. 2009;21(2):11-26. (Korean)
8. Lee JH, Lee EJ, Koh BH. Theories on the Covetous Desire in Four Quaternary Elements (Heaven-Human-Nature-Course) of 『Donguisusebowon(東醫壽世保元) Theories on Nature and Conduct(性命論)』. J Sasang Constutut Med. 2010;22(2):1-15. (Korean)